

# 張錫純의 大氣論에 관한 考察

大田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金亨泰 · 尹暢烈

## 內容摘要

對張錫純之大氣論研究以後，得到了以下的結論.

1. 張錫純之大氣論根于《內經》，而且繼承《金匱要略》和喻嘉言的思想.
2. 大氣是積於胸中，主管呼吸，振作精神，推動心思，腦力，五官和百骸的動作之氣. 它是後天諸氣之綱領而是全身血脈之綱領. 相當于《內經》之宗氣.
3. 大氣是本于先天之元氣，把水穀之氣爲養料，依賴着自然界之清氣形成的.
4. 大氣之機能失調的主要原因是從虛發生的大氣下陷，這個原因是力小任重，空腹力作，病以後氣未復的情況下，勤于動作，泄瀉日久，服破氣藥太過，氣分虛極等等.
5. 張錫純經過了各種各樣的臨床經驗以後詳細地發現了大氣下陷的證狀跟其他證狀的鑑別診斷.
6. 關於大氣論，張錫純和喻嘉言的共通點是胸中之大氣做爲人體活動的原動力. 差別点是以下幾個方面. 張錫純以爲大氣就是宗氣. 喻嘉言說大氣不是宗氣而是圍着肺氣的空洞無着之氣，而且這個診斷在于右寸，證狀限定于胸中，治療方法也限定于治胸中之陽氣的有餘不足.

## 차례

### I. 緒論

### II. 本論

1. 大氣論 啓發의 과정
2. 大氣는 곧 宗氣이다
3. 大氣의 형성과 기능
4. 大氣의 機能失調의 病因病理
5. “大氣下陷”의 證候 및 鑑別診斷
6. 大氣下陷證의 治療
7. 喻嘉言의 大氣論과의 차이점

### III. 結論

## I. 緒論

張錫純(1860~1933)의 字는 壽甫이고 河北省 鹽山縣 사람이다. 組父인 張彤元은 業醫였고 장석순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서 文章을 익혔고 수년 뒤에 겹해서 醫學을 공부했다.

일찍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자 유학을 버리고 의학에 종사하였다. 장석순은 광범위하게 醫書를 수집하여 10여년에 걸쳐 발분하여 의서를 공부하여 사람을 치료할 때 자못 心得한 내용을 베풀 수가 있었다.

辛亥革命 이후에 德州의 駐軍 統領이었던 黃某의 초빙을 받아 軍醫가 되어 함께 武漢으로 간 이후부터 醫術으로써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1918년 內政部長 劉尙淸이 장석순을 초빙하여 沈陽에 가서 “立達中醫院”을 건립하고 院長의 직책을 맡겼다. 그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의 격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古方을 잘 變方을 하고 各家의 정수를 吸收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創見을 제출하고 中醫과 西醫의 장점을 취하여 西醫들이 難治病이라고 여기는 疾病에 대해서도 훌륭한 치료효과를 거두어 國內에 이름을 떨쳐 당시 江蘇의 陸晉笙 楊如侯, 廣東의 劉蔚楚와 함께 “醫林四大家”의 명예를 누렸고 또 慈溪의 張生甫 嘉定의 張山雷와 함께 “海內三張”으로 並稱되었다.

直奉戰爭 후에 그는 滄州로 돌아와 간판을 걸고 醫術을 베풀었고 1926년 天津에 가서 中西滙通醫社를 설립하고서 이후로는 天津에서 거주하였다. 그는 學生 100여명을 받아서 가르쳤고 말년에는 國醫函授學校를 설립하여 50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各省에 醫學을 보급하였다.<sup>1)</sup> 그의 醫學論文은 아주 많은데 《醫學衷中參西錄》七期 三十卷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책은 1918년 처음 출판된 이후 계속 판을 거듭해 왔는데 第七期《傷寒論講義》가 완성되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張蔭潮가 遺稿를 整理하여 인쇄에 부쳐 1934년에 출판되었다. 全書는 모두 15次에 걸쳐서 출판되었다. 共產黨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의 손자가 第七期까지의 版權과 아직 出版되지 않은 遺稿를 河北省 衛生工作者協會에 기증하였고 아울러 1957년에 第八期가 간행되었다. 張錫純은 醫學界에 투신한 이후 濟世活人과 救死扶傷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 學問의 研究와 임상시술에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다. 第八期까지 간행된 《醫學衷中參西錄》은 그의 一生에 걸친 임상 경험의 總結이다. 그의 學術上의 특징은 사색을 깊이 하였고 새로운 創見을 제시하는데 과감하였으며 不同한 見解를 제기하는데도 용감하여 醫學史에 있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創方한 200여首의 方劑는 현재 널리 운용되고 있으며 그가 밝혀낸 藥物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대다수 사람들에 의하여 환영을 받고 있다. 그는 뛰어난 醫學者 및 임상가였을 뿐만 아니라 著名한 醫學教育者였으며, 신중하면서도 빈틈없는 學問을 研究하는 정신은 후학의 모범이 된다.

시대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의 中西滙通은 건강부회한 곳도 있지만 그의 개방된 思考는 中西醫滙通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서양의학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韓醫學의 本質을 잃지 않았던 것은 확실히 대단히 본받을 만한 점이다. 韓醫學과 西洋醫學이 共存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장석순의 의학사상은 後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著者は 앞서 발표한 “張錫純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를 이어 본 논문을 발표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大氣論 啓發의 과정

장석순은 임상이 깊어가면서 호흡을 하는 肺氣외에 별도로 胸中에 쌓여 있는 氣가 있어 이 氣가 肺臟의 呼吸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氣는 全身을 支撐하고 精神을 振作하므로 心思腦力과 官骸動作이 이 氣에 依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虛하게 되거나 虛陷하게 되면 “此氣一虛하면 呼吸이 卽覺不利하며 而且肢體疲懶하며 精神昏憤하며 腦力心思가 爲之頓減이오 若其氣虛而且陷커나 或下陷過甚者는 其人이 卽呼吸頓停하며 昏然罔覺”<sup>2)</sup>하게 됨의

1) 傅維康主編. 中國醫學史. 中國.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538.

식하였다.

그는 임상경험을 통해서 胸中에는 이러한 積氣가 있고 이것이 全身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 氣를 무슨 氣라 이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후 方書를 두루 읽다가 《金匱要略》의 水氣病脈證治의 桂枝加黃芪湯 다음에 있는 “大氣一轉하면 其氣乃散(大氣가 일단 流通되고 轉輸되면 寒氣가 곧 消散된다)”<sup>3)</sup>의 구절에서 大氣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았고, 후에 喻嘉言의 《醫門法律》에 “五臟六腑와 大經小絡이 晝夜循環不息은 必賴胸中大氣가 斡旋其間이라”<sup>4)</sup>한 것을 보고 비로소 胸中所積之氣를 大氣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후 內經의 熱論 “大氣皆去 病日已矣”의 구절에 대해 王冰이 “大氣는 謂大邪之氣也”<sup>5)</sup>라고 註를 단것을 보고 다시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胸中之氣를 仲景과 喻嘉言이 大氣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또 두 冊 모두 下陷에 대해서 言及을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한가? 그는 다시 內經을 取해서 한구절 한구절을 세세히 살펴가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뒤 그는 비로소 內經에서 말하는 大氣는 外感之氣를 가리키는 경우와 胸中之氣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바로 胸中之大氣이며 아울러 下陷之說도 內經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모두 찾아내게 되었다. 大氣說을 찾아낸 후 그는 기쁨과 자신감 속에서 “煌煌聖言이 昭如日星이어늘 何數千年著術諸家は 不爲之大發明耶아”<sup>6)</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가 內經을 통해 大氣說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內經에서 大氣라는 말은 모두 13군데에서 언급되어있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大邪之氣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소문 27 離合眞邪論篇의 “呼盡乃去하면 大氣皆出”, “候邪不審하야 大氣已過에 瀉之則眞氣脫”과 62 調經論篇의 “必切而出하면 大氣乃屈” 그리고 靈樞 42 病傳篇의 “大氣入臟하면 腹痛下淫하야 可以致死” “黃帝曰火氣入臟은 奈何오” 등이 있어 총 여섯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는 자연계에 충만한 外氣를 지적하는 경우로 소문 67 五運大論의 지구를 大氣가 들고 있다는 (大氣舉之也)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喻昌은 장석순과 달리 이것에 근거하여 그의 大氣論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는 胸中之氣 또는 正氣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用例는 소문 27 離合眞邪論의 “令神氣存하면 大氣留止”와 58 氣穴論의 “肉分之間과 谿谷之會에 以行營衛하며 以會大氣”등 소문에는 두 곳이 사용되고 있다. 大氣留止의 大氣에 대해 王冰은 “然此大氣는 謂大經之氣가 流行榮衛者”<sup>7)</sup>라 하였고 以會大氣의 大氣에 대해 高士宗은 “大氣는 宗氣也니 積于胸中 하야 以司呼吸而合于皮毛者也”<sup>8)</sup>라고 하였다. 靈樞에는 모두 네군데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곳이 나오는데 靈樞 49 五色的 “大氣入于臟腑者”, 56 五味的 “其大氣之搏而不行者”, 75 刺節眞邪의 “大氣逆上” 그리고 78 九針論의 大針을 설명하는 곳의 “以取大氣之不能過于關節者也”가 이에 해당한다. 장개빈은 이곳의 註에서 “凡

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157.

3) 郭藹春, 王玉興編著. 金匱要略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89.

4)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7.

5) 王冰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07.

6) 張錫純. 上揭書. p.157.

7) 王冰. 上揭書. p.192.

8)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p.394.

淫邪流溢于肌體하여 爲風爲水하여 不能過于關節而雍滯爲病者는 必用大針以利機關之大氣니 大氣通則淫邪行矣<sup>9)</sup>라고 하였다.

장석순은 이 세번째 의미에 근거하여 그의 大氣說을 확립해 나간 것이다. 그가 다시 內經을 통해 이론을 구체화 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靈樞의 五味篇에서 “黃帝曰 營衛之行은 奈何오 伯高曰穀이 始入于胃에 其精微者는 先出于胃之兩焦하여 以灌五臟할새 別出兩行營衛之道라 其大氣之搏而不行者가 積于胸中을 命曰氣海니 出于肺하고 循喉咽故로 呼則出하고 吸則入이라 天地之精氣는 其大數가 常出三入一하니 故로 穀不入하면 半日則氣衰하고 一日則氣少矣니이다<sup>10)</sup>라 하였다. 장석순은 肺는 胸中에 달려서 밑으로 통하는 구멍이 없고 胸中の 大氣가 肺의 밖을 싸고 돌되 위로는 喉와도 통하지 않고 또한 咽과도 통하지 않지만 “出于肺 循喉咽 呼則出 吸則入”이라고 한 것은 大氣가 肺臟을 鼓動시켜서 呼吸을 하게하고 肺中之氣는 이것에 의해서 出入하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天地之精氣常出三入一”에 대해서도 장석순은 독특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는 吸入之氣가 胸中과는 서로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肺膜을 통해 4분의 1을 透過시켜서 胸中大氣를 養하고 4분의 3은 臟腑가운데의 混濁한 기를 바꾸어서 밖으로 내 보내는데 (이것이 그는 서양사람들 주장하는 산소를 들어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 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이것이 氣化之妙用이라고 하였다. “半日不食則氣衰 一日不食則氣少”는 胸中大氣가 비록 天地之精氣를 빌려서 기를 수는 있지만 出三入一하여 얻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穀氣의 도움을 얻어 補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大氣는 곧 宗氣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도 內經의 이론에 의거하여 도출해 낸 것이다.

《素問》平人氣象論에 “胃之大絡을 名曰虛里니 貫膈絡肺하여 出於左乳下하니 其動이 應衣는 脈宗其也라”고 하였다. 그는 虛里之絡은 胃에서 水穀之氣를 胸中으로 보내 大氣를 기르는 道路로써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肺에 絡하고 다시 左乳下로 나와서 動脈이 되니 이 動脈은 응당 大氣之餘波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宗氣라고 한 것은 宗氣는 곧 大氣로 後天生命의 宗主가 되기 때문에 이를 높여 宗氣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絡을 虛里라고 한 이유는 貫膈絡肺하여 胸中空虛한 곳을 游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靈樞 邪客篇에서 “五穀이 入于胃하여 其粗粕津液宗氣로 分爲三陰하니 故로 宗氣는 積于胸中하여 出于喉嚨하여 以貫心脈而行呼吸焉”이라 하였다.

이 經文을 보고 그는 宗氣가 또한 胸中에 쌓여 있다고 했으니 宗氣가 大氣가 되는 이유는 구체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세하게 “以貫心脈而行呼吸”한다는 말을 살펴 볼 것 같으면 大氣는 後天諸氣之綱領이 될 뿐만 아니라 全身血脈之綱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張錫純은 이상의 經文을 통해서 大氣가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더욱 요점이 되는 것은 다음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靈樞·五色篇》에 “雷公曰 人不病卒死는 何以知之오 黃帝曰 大氣入于臟腑者는 不病而卒死矣라”하였다. 張錫純은 이의 내용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의 횡격막 위에 있는 心肺는 모두 臟으로써 腑가 없다. 內經에서 臟腑라고 함께 말한 것을 보면 이곳은 횡격막 아래의 臟腑를 가르킴을 알 수가 있다. 膈上의 大氣가 膈下의 臟腑에 들어가면 膈上에는 大氣가 없어서 肺臟을 열고

9) 張介賓. 原撰類經評注.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p.673.

10)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35.

달는 것을 鼓動시킬 수가 없어 그 呼吸이 반드시 갑자기 정지한다. 그래서 無病而猝死하는 것이다” 이를 張錫純은 胸中大氣下陷之證이라고 하였고 千古이래 자신이 처음으로 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여 大氣下陷의 처방을 비로소 장안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此는 乃胸中大氣下陷之證也라 夫大氣下陷之證은 如此之重하니 其氣果全數下陷者는 誠難挽回어니와 若其下陷이 或僅一半하며 其劇者或至強半하면 皆可挽回其下陷之氣하야 以復其本位라 而伊古以來로 竟無挽回大氣下陷之方하니 誠以讀《內經》者 于此節經文에 皆忽不加察일새라 至王氏注《內經》할새 又但注《素問》而不注《靈樞》하고 及後世之注《內經》者는 又妄謂此節所謂大氣를 乃外感大邪之氣하니라 夫其人이 果外感邪氣면 與無病之文으로 不符오 卽所感之外邪甚重하면 亦必瞑眩數刻하니 又與猝死之文으로 不符라 從古至今히 無切實闡發此節經文者는 盖因未明大氣下陷之證이니 是以無治大氣下陷之方也라”<sup>11)</sup>

## 2. 大氣는 곧 宗氣이다

張錫純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素問·平人氣象論》의 “胃之大絡을 名虛里니 貫膈絡肺하야 出於左乳下하니 其動이 應衣는 脈宗氣也라”와 “五穀이 入于胃하야 其糟粕 津液 宗氣로 分爲三隧하니 故로 宗氣는 積于胸中하야 出于喉嚨하야 以貫心脈而行呼吸焉”이라 한 것에 근거하여 大氣는 곧 宗氣라고 주장하였다.

張錫純은 或者가 “사람의 胸中은 원래 積血이 많다. 그러므로 王清任은 《醫林改錯》에서 胸中은 血府라 하고 血府逐瘀湯을 만들어 上焦瘀血의 모든 증을 치료하였는데 지금 당신은 胸中에서 오로지 大氣만을 중시하니 胸中の 血은 사람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膻中은 氣海라고 《內經》에서 명확히 밝혀 놓은 문장이 있는데 膻中은 곧 胸中이다(膻은 바로 膈이다. 《內經》에서 말하는 膻中은 胸中을 지칭하기도 하고 心包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모두 膈上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실로 만고불변의 가르침이다. 王氏의 《醫林改錯》은 모두 눈으로 보고서 얻은 것으로 단지 胸中の 유형의 積血만을 보고 무형의 積氣는 보지 못한 것이니 《內經》의 氣海를 血府라고 경솔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무릇 血은 氣와 짝이 되는데 胸中에 血이 없으면 大氣는 머무를 곳이 없게 되니 血의 관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大氣가 전신을 순환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더욱 중요하다. 王氏가 大氣를 몰랐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王氏가 빠뜨린 부분이다. 내가 이 篇을 지어 옛 사람이 밝히지 못한 바를 밝히는 것이니 한의학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이전의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기 때문에 胸中大氣의 3가지 뜻을 밝힐 뿐이다. 다시 胸中の 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은 것은 王氏의 책이 세상에 널리 읽혀서 의사들이 모두 그 설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이다.”<sup>12)</sup>

또 或者가 “사람의 胸中은 위로는 인후와 통하지 않고 아래로는 膈膜이 막고 있어 膈膜 아래의 臟腑와도 통하지 않는데 여기에 쌓여 있는 大氣가 어떻게 전신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이치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항아리 속에 침을 놓고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자석으로 당기면 침이 자석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氣가 변화해서 통과해서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자석과 침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하물며 인체의 經絡은 원래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은가? 또 이것이 온몸을 주관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胸中大氣가) 다른 곳에 직접 통하는 일정한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다른

11) 張錫純, 上揭書, 中冊, p. 187.

12) 張錫純, 上揭書, 上冊, pp. 173-174.

곳에 통하는 분명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氣가 胸中에 쌓여 머물지 않을테니 어떻게 전신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sup>13)</sup>

이상의 내용은 胸中이 氣海가 되어 大氣가 머무르는 장소가 되며 더 나아가 이러한 大氣가 전신에 作用하고 있는 기전에 대해서 밝혀 주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작용을 '後天全身之槓干' '能斡旋全身'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張錫純은 《靈樞邪客》篇의 "以貫心脈而行呼吸"의 기록에 근거하여 大氣는 "後天諸氣之綱領 并爲全身血脈之綱領"이 될 뿐만 아니라 元氣와 더불어 함께 人身의 命脈이 되므로 사람들을 "無病而猝死"하게 하므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3. 大氣의 형성과 기능

張錫純은 大氣는 先天의 元氣에서 根源하는데 出生前에 배꼽아래의 元氣가 점점 충실해져서 위로 胸中에 이르러 大氣를 生成한다고 하였다. 元氣와 大氣의 차이점에 대하여 "夫元氣는 藏于臍下하니 爲先天命之根柢로 道家所謂祖氣也오 大氣는 積于胸中하니 爲後天全身之槓干으로 《內經》所謂宗氣也라 祖爲一身之遠命脈이오 宗爲一身之近命脈이니 命脈은 雖有遠近이나 其關於人身之緊要는 同也라 而漢唐以下諸書는 但知注重元氣하고 不知注重大氣라"<sup>14)</sup>고 하였다.

張錫純은 元氣와 水穀之氣와 大氣의 관계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大氣는 胸中에 가득 차서 肺가 호흡을 하게 하는 기운이다. 사람의 몸은 飛門으로부터 魄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의 기운이 주관한다. 그러나 이 氣가 발생되는 곳과 배양되는 곳, 축적되는 곳이 각기 다르다.

'天一生水'하므로 腎臟이 먼저 생성되고 腎과 命門이 연계된 가운데에서(腎의 膜油를 감싸면서 척추 아래서부터 위로 일곱째 마디인 곳에 연결되어 있다) 氣가 하나 하나 썩트게(息息萌動)되니 이것이 乾元資始의 氣로서 《內經》에서 말하는 '少火生氣'이다. 이 氣는 少火에서 발생한 후 서서히 위로 올라가 後天의 水穀의 氣로 배양되어 充滿한(磅礴)세력이 되며 가슴(膺胸) 속 빈곳에 저장되어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듯 大氣는 원래 元氣를 근본으로 삼고 水穀之氣에 의해서 배양되고 胸中을 거쳐(宅窟)로 삼는다 모두 같은 氣이지만 胸中의 氣만을 大氣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몸을 지탱하면서 모든 氣의 綱領이 되고 肺外를 둘러싸고 받쳐서 호흡을 주관하는 중추(樞機)가 되기 때문에 중히 여겨 大氣라고 한 것이다."<sup>15)</sup>

또 그는 大氣와 元氣의 重要性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元氣者는 稟受先天하야 爲胚胎之根基 故로 道書에 尊之曰 '祖氣'오 大氣는 肇始于先天 而培養于後天하야 爲身體之槓干 故로 《內經》에 尊之曰 '宗氣'라 有如樹上之果하니 元氣는 乃其樹之根也오 大氣는 乃其樹之身也라 根之關於果者至重이나 身之關於果者도 亦非輕也라"<sup>16)</sup>

그는 또 "人未生時에 皆由臍呼吸하고 其呼吸之原動力은 在元氣하니 應無需乎大氣하고 其胸中도 亦未有大氣也어니와 迨胎氣日盛하야 臍下元氣漸充하면 上達胸中而生大氣하고 大氣漸滿하야 能鼓舞肺臟하야 使之呼吸하면 卽脫離母腹하야 由肺呼吸而通天地之氣矣라" 하여 大氣의 형성을 밝히고 있고 출생한 뒤에는 이 大氣는 繼續 心肺의 機能을 유지시켜 人體의 生長發育을 促進시키기 때문에 "大氣者는 原以元氣爲本하고 以水穀之氣로 爲養料하고 以胸中之地로 爲宅窟也"<sup>17)</sup>라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大氣는 自然界의 清氣의 滋養도 받아야만 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胸中의 大氣는

13) 張錫純, 上揭書, 上冊, p. 173.

14) 張錫純, 上揭書, 中冊, pp. 185-186.

15) 張錫純, 上揭書, 上冊, pp. 155-156.

16) 張錫純, 上揭書, 上冊, p. 175.

17) 張錫純, 上揭書, 中冊, p. 186.

元氣를 根本으로 삼고 水穀之氣와 自然界 清氣를 養料로 삼아 後天諸氣의 綱領이 될 뿐만 아니라 全身血脈의 綱領이 되며 心肺를 貫通하여 呼吸을 貫注하고 全身을 支配하며 精神을 振作하여 생각과 智力, 五官의 運動과 骨節의 運動 등이 모두 이 大氣에 依지하여 作用하고 있다.

大氣가 呼吸을 貫注하는 機能에 대해 서양의학의 學說중 延髓가 呼吸中樞가 됨을 結合하여 說明하기를 “西人들은 延髓가 肺의 呼吸을 貫注한다고 한다. 연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腦뒤에서 목과 연결되니 사실상 督脈이 腦로 들어가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의 督脈은 약간 굵고 그 가운데로 流通하는 髓質은 不固하여 길이가 대략 3寸이 되므로 延髓라고 부른다. 뇌 신경이 바로 이곳에서 대부분 分支된다. 연수가 肺의 呼吸을 貫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腦髓神經이 全身의 運動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內經》에서 “上氣不足하면 腦爲之不滿하고 耳爲之苦鳴하고 頭爲之傾하고 目爲之眩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上氣라는 것은 胸中大氣가 上行하여 腦로 貫注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연수의 機能은 원래 大氣가 作用하여 돌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만약 胸中에 大氣가 없다면 연수가 맡고 있는 呼吸의 機能도 반드시 즉각 중지될 것이다. 비록 西人의 說明처럼 肺藏의 呼吸을 연수가 貫注하지만 胸中의 大氣가 사실상 呼吸을 貫注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張錫純의 학문이 동서양의 醫學思想을 깊이있게 匯通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사색을 통해 新知見을 과감하게 創안하는 위대성을 엿볼 수 있다.

#### 4. 大氣의 機能失調의 病因病理

張錫純이 大氣의 機能失調의 病因病理에 대한 인식은 주로 臨床을 통해서 총결한 것이다. 그는 大氣의 機能失調의 주요 病證은 “大氣下陷”이고 病理은 주로 “虛”에 있으며 “虛”로 인하여 下陷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靈樞五色》篇에서 말하는 “大氣入于臟腑者 不病而卒死”라는 구절은 “大氣下陷”證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夫人之膈上은 心肺皆臟이니 無所謂腑也라 經既統言臟腑하니 指膈下臟腑可知라 以膈上之大氣가 入于膈下臟腑 則膈上無大氣以鼓動肺臟之闕辟하니 其呼吸이 必然頓停하리니 是以無病而卒死也라 此乃胸中大氣下陷之證也”<sup>18)</sup>라고 하였으며, 虛로 인하여 下陷을 일으키는 원인은 “多得之力小任重 或枵腹力作(枵腹은 空腹의 뜻) 或病後氣未復 勤于動作 或人泄瀉日久 或服破氣藥太過 或氣分虛極自下陷 種種病因 ……”<sup>19)</sup>이라고 하였다.

#### 5. “大氣下陷”의 證候 및 鑑別診斷

張錫純은 “大氣下陷”證의 주요 증상은 脈象이 微細遲弱하고 氣短不足以息이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氣短不足以息하며 或努力呼吸하여 有似乎喘하며 或氣息將停하니 危在頃刻이라”<sup>20)</sup>, “其脈象이 沉遲微弱하고 關前尤甚하며 其劇者는 或六脈不全하며 或參伍不調라”<sup>21)</sup>, “此氣一虛하면 呼吸即覺不利하고 而且肢體酸懶하며 精神昏憤하며 腦力心思가 爲之頓減이오 若其氣虛而且陷하며 或下陷過甚者는 其人이 卽呼吸停頓하며 昏然罔覺”<sup>22)</sup>이라고 하였으며, 兼症으로는 “或寒熱往來 或心中怔忡 或大汗淋漓 或神昏健忘 或聲顫身動 或胸中滿悶 或咽干作渴 或常常呵欠 或肢體痿廢 或食後易飢 或二便不禁 或癱閉身腫 或女子下血不止等”이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脈症은 慢性衰弱으로 인한 病症에서도 나타나고 또 外感急重證으로 心肺機能이 극도로 低下되어 全身이 衰竭되는 病症에도 나타나므로 임상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張錫純은 進一步하여 “大氣下陷”脈證의 臨床鑑別診斷經驗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이를

18)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87.

19)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6.

20)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5.

21)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5.

22)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大氣下陷의 氣短, 呼吸不利似喘 症狀와 喘證과의 감별

張錫純은 病機로부터 보면 첫째는 氣陷이고 둘째는 氣逆이라고 하였다. 證狀으로 보면 大氣下陷이 아주 심하면 呼吸之機關이 將息하게 되어 억지로 肺氣를 고무하여 呼吸을 하게 하여 促迫한 모습이 喘과 유사하나 氣逆으로 인한 喘과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喘證은 內傷外感을 莫論하고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肩息(《內經》에 “喘而肩動者爲肩息”이라고 하였다)하지만, 大氣下陷者는 비록 呼吸時 소리는 나지만 肩息은 없다. 또 喘證의 脈象은 數脈이 많고 또는 浮滑한 脈象도 있으며 또는 尺弱寸強한 맥이 나타나지만 大氣下陷의 脈象은 모두 이와 반대된다.

② 大氣下陷에 나타나는 短氣와 寒飲結胸證과의 감별

張錫純은 “脈象之微細遲弱 與胸中之短氣 實與寒飲結胸相似 然診其脈似寒涼 而詢之果畏寒涼 且覺短氣者 寒飲結胸也 診其脈似寒涼 而詢之不畏寒涼 惟覺短氣者 大氣下陷也”<sup>23)</sup>라고 하였으며 또 “且卽以短氣論 而大氣下陷之短氣 與寒飲結胸之短氣 亦自有辨 寒飲結胸短氣 似覺有物壓之 大氣下陷短氣 常覺上氣與下氣不相接續 臨證者當細審之”<sup>24)</sup>라고 하였다.

③ 大氣下陷證의 寒熱往來와 小柴胡湯證과의 감별:

大氣下陷時의 寒熱은 “初陷之時 陽氣鬱而不暢則作寒 既陷之後 陽氣蓄而欲宣則作熱 迨陽氣蓄極而通 仍復些些上達 則又微汗而熱解”하기 때문에 小柴胡湯證의 邪氣가 少陽에 있어 正邪가 交爭하여 寒熱往來하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④ 大氣下陷證의 咽干作渴과 熱盛津傷한 口渴과의 감별

大氣下陷으로 인한 咽干作渴은 “津液不能隨氣上潮”하여 生하는 것으로 熱이 盛하여 津液이 마르는 것과는 다르다.

⑤ 大氣下陷證의 胸中滿悶과 氣逆證과의 감별

大氣下陷하여 滿悶하는 사람은 “呼吸不利而自覺滿悶”하거나 또는 “自言胸中滿悶 其實非滿悶 乃短氣也”라고 하여 만약 의사가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開胸理氣劑를 쓰면 도리어 病情이 더욱 악화되는데 이는 氣虛陷으로 인하여 답답하게 느끼는 것으로 氣逆證의 氣機壅實로 인한 滿悶과는 다르다.

⑥ 大氣下陷證의 心中怔忡과 心氣虛의 怔忡과의 감별

大氣下陷證의 怔忡은 氣陷하여 “心無所附麗”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만약 大氣가 升하여 “心有所依”하면 怔忡은 스스로 멎게 되지만 心氣가 虛하여 推動하는 힘이 無力하여 발생하는 怔忡과는 다르다.

⑦ 大氣下陷의 神昏健忘과 心腎虧損證과의 감별

大氣下陷하여 神昏健忘한 사람은 大氣가 陷함으로 인해 腦로 上達하지 못하여 腦髓神經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短氣, 或不覺有所苦의 증상이 나타나며, 心腎虧損하여 腦髓失養한 것과는 구별이 된다.

⑧ 大氣下陷으로 인한 血上溢과 氣機逆亂으로 인한 血上溢과의 감별

張錫純은 大氣는 諸氣의 綱領으로 大氣가 陷한 뒤에는 諸氣가 통솔을 잃게 되어 쉽게 위를 범하게 되며, 또는 錯亂妄行하여 吐血, 衄血 등 血上溢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상에서는 응당 氣逆으로 인한 血上溢과 서로 구별하여 治療時에 일괄적으로 降氣止血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응당 升提하면 서도 收澀하는 약물을 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6.

24) 張錫純, 上揭書, 上冊, p.156.

### ⑨ 大氣下陷과 氣鬱과의 감별

大氣下陷과 氣鬱은 모두 “常太息”하는 증상이 있으나 大氣下陷者는 반드시 胸中短氣를 느껴서 太息을 빌어 氣를 소통한다. 그러나 氣鬱證은 대부분 胸中滿悶이 있어 太息을 통하여 氣機를 통하게 한다. 氣鬱證에는 응당 理氣開鬱하는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大氣下陷證에 만약 理氣開鬱劑를 사용하였을 경우 開鬱하면 할수록 더욱 陷하게 된다. 그러므로 張錫純은 “愚願業醫者 凡遇氣分不舒之證宜先存一大氣下陷理想 以細心體察 倘遇此等證 庶可挽回人命于頃刻也”라고 하였다.

### ⑩ 大氣下陷과 中消와의 감별

張錫純은 大氣下陷의 多食은 胃中の 氣가 大氣의 統攝을 잃었거나 또는 급히 下行하여 음식도 그와 함께 급히 내려가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므로 中消로 誤診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⑪ 大氣下陷과 中氣下陷과의 감별

張錫純은 李東垣이 補中益氣湯을 만들어 中氣下陷證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大氣下陷證과 유사하지만 그 證狀을 잘 따져보면 大氣下陷은 中氣下陷보다 훨씬 위중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지적하기를 “短氣不足以息 尤爲大氣下陷之明徵”이라고 하였다. 또 病機面에서도 兩者는 모두 虛로 인하여 陷이 나타나지만 大氣는 諸氣의 綱領으로 諸氣를 統率하는 機能이 있으므로 中氣下陷하여 泄瀉를 오래 동안 하게 되면 大氣下陷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張錫純은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總結하여 후학들에게 경고하기를 治療時에 응당 “若但大氣下陷 而中氣不下陷者 白朮亦不可不用 恐其氣分或有鬱結 而芪朮并用 易生脹滿也”라고 하였다.

## 6. 大氣下陷證의 治療

張錫純은 大氣下陷證을 깊이 연구하여 “升陷湯”을 爲主로 하는 여러 가지 補虛學陷劑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回陽升陷湯, 理鬱升陷湯, 醒脾升陷湯 등으로 大氣下陷으로 인한 여러 가지 病症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모든 處方은 黃芪가 君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黃芪는 補氣를 잘하면서도 升氣를 잘하여 그 바탕이 가볍고 성겨서 가운데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胸中대기와 同氣相求하는 모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張錫純의 “大氣說”은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상의학의 발전에도 위대한 전도를 펼쳐주었다. 현재 張錫純의 升陷湯을 加減하여 여러 가지 慢性衰弱證을 치료하는데 예를 들면 內臟下垂, 神經衰弱, 神經官能症, 肺心病, 肺氣腫, 肝膽疾患, 慢性胃炎, 潰瘍病, 冠心病, 糖尿病, 低血壓, 甲狀腺機能亢進證 등이 있다. 그 외에도 危, 急, 重症의 구급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急性大出血, 심한 吐泄, 低血壓 쇼크, 低血糖, 腦動脈硬化, 腦血管疾患, 일산화탄소 中毒 및 心, 肺, 腦機能衰竭로 인한 昏迷 등이 있는데 이는 한의학에서 危急重症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공로가 있다.

## 7. 喻嘉言의 大氣論과의 차이점

張錫純의 大氣論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喻嘉言의 大氣論에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喻嘉言은 지구주위에 大氣가 가득 차서 지구를 공중에 띄워 놓고 그 변화를 영원히 지속하듯이 이와 똑같이 人體내에는 胸中에 大氣가 있어 人體의 모든 機能을 작용케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身形之中에 有營氣 有衛氣 有宗氣 有臟腑之氣 有經絡之氣하여 各爲區分이나 其所以統攝營衛 臟腑 經絡하여 而令充周無間하고 環流不息하며 通體節節이 皆靈者는 全賴胸中大氣爲之主持”라 하였고, 또 “五臟六腑 大經小絡이 晝夜循環不息은 必賴胸中大氣가 斡旋其間이니 大氣一衰則出入廢하고 升降息하여 神機化滅하고 氣立孤危矣리라”<sup>25)</sup>고 하였다. 胸中の 대기가 人體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관점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지만 張錫純은 大氣가 곧 宗氣이고 呼吸을 주관하는 주된 힘이라고 强

調한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張錫純은 大氣를 宗氣라고 確定하여 언급을 했지만 喻嘉言은 宗氣는 營氣, 衛氣와 더불어 三隧로 나뉜다고 했으니 隧(隧는 땅속의 暗道로 여기서는 人體내에서 유통하는 독특한 경로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寒暑燥濕風火처럼 지구 表面에 들어오는 氣가 되므로 太虛中에서 空洞無着한 氣인 大氣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宗氣는 左乳下에서 診斷하고 大氣는 《內經》의 “上附上 右 外以候肺 內以候胸中”에 根據하여 右寸에서 診斷한다고 하였다.

證狀과 治法에 나아가면 양자의 見解가 현저히 달라지는데, 張錫純이 大氣가 虛하면 呼吸不利, 肢體疲懶, 精神昏憤, 腦力心思頓減하고 過虛하면 下陷이 特徵적으로 나타나므로 黃芪 등으로 升陷을 爲 主로 治療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喻嘉言은 水飲이 久積胸中不散하여 傷其網氳之氣하거나 心下堅大如盤하여 遮蔽大氣하여 不得透過하여 只從旁邊轉轉하여 如旋杯之狀할 때 柱枝去芍藥加麻黃附子湯으로 通胸中陽氣하고 治胸痹心痛에 薤白, 白酒로 爲君하며 胸中之陽不虧하여 可損其有餘할 때 枳朮湯을 쓰는 것등 胸中의 治療에 국한하고 있다.

### Ⅲ. 結 論

張錫純의 大氣論에 대하여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張錫純의 大氣論은 《內經》에 뿌리를 두고 《金匱要略》과 喻嘉言의 사상을 계승하여 啓發되었다.
2. 大氣는 胸中에 쌓여 呼吸을 주관하고 精神을 振作하며 心思와 腦力を 증진시키고 五官과 百骸의 동작을 추진하는 氣로써 後天諸氣의 綱領이 되고 全身血脈의 綱領이 되는데 《內經》에서 말하는 宗氣가 이에 해당한다.
3. 대기는 先天의 元氣를 根本으로 하여 水穀之氣를 養料로 삼고 自然界 清氣의 滋養을 받아 형성된다.
4. 大氣의 機能失調은 주로 虛로 인한 大氣下陷으로 그 原因으로는 力小任重, 空腹力作, 病後氣未復한데 勤于動作, 泄瀉日久, 服破氣藥太過, 氣分虛極 등이 있다.
5. 張錫純은 다양한 臨床經驗을 통해 大氣下陷의 證狀과 여타 證狀과의 鑑別診斷을 詳細하게 밝히고 있다.
6. 張錫純과 喻嘉言의 大氣論의 공통점은 胸中의 大氣가 人體 活動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張錫純이 大氣가 곧 宗氣라 한 반면 喻嘉言은 大氣는 宗氣가 아니고 肺氣를 밖에서 싸서 들고 있는 空洞無着之氣로 보아서 右寸에서 診斷하며, 證狀을 胸中에 국한하고 치료도 胸中之陽氣의

25) 萬友生, 楊扶國 等校註,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p.322.

有餘不足을 다스리는데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 參考文獻

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2. 郭靄春, 王玉興編著. 金匱要略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 萬友生, 楊扶國 等校註.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4. 傅維康主編. 中國醫學史. 中國.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5. 王水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6. 張介賓. 原撰類經評注.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8.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9.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